

흡연에 대해서

사람들은 여러가지 기호식품중에서 자신의 취향에 맞는 것을 골라 즐기고 있습니다. 커피라든가 캔디라든가 홍차라든가 껌등, 요즘은 담배도 기호식품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다른 기호식품을 주위사람을 의식하지않고 즐기듯이 담배도 당연히 자신이 피우고 싶을때에는 피우는 것이 당연하다고 애연가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내생각도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꼭 생각하지않으면 앓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건강문제입니다. 커피나 캔디 등은 그것을 즐기는 사람에게만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나 담배의 경우는 주위의 사람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이미 담배가 유해한 것은 누구라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몇몇의 나라에서는 담배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승소한 일도 있습니다.

담배는 자신보다 결의 사람이 더 악영향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애연가들은 그러한 것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신의 가족과 주위의 사람들을 함께 죽음의 세계로 데려가는 것과 같습니다. 실례를 들면 남편이 담배를 필 경우에 남편보다 아내나 아이들에게 나타나는 폐암의 비율이 높다고 하는 텔레비전 보도가 있었지만 몇몇의 애연가는 그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자신만 만족하면 다른 사람은 아무래도 좋다고 하는 이기주의적인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은 지하철이나 버스나 택시 안에서 담배를 피우는 사람은 보이지 않습니다만 오히려 운전수가 담배를 피워서 승객에게 불쾌감을 주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또 즐거운 마음으로 한잔의 차를 마시면서 얘기하기 위해 간 커피숍은 대개 담배 연기가 자욱한 너구리굴 같습니다. 마치 전쟁의 화학전을 방불케하는것입니다. 담배를 피우면 스트레스해소가 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만 좋아하는 사람들과 결의 사람들을 배려하는 마음도 함께 가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후에 피울권리를 주장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